

2일 Market Index			
코스피	2559.79	코스닥	721.86
	(+3.18)		(+4.62)
금리	2.282	환율	1401.50
	(+0.015)		(-19.50)



‘K뷰티’ 역직구 10억 달러 육박 6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화장품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지난해 해외 소비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구매한 화장품 등 ‘K뷰티’ 상품 규모가 1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향료·화장품 해외 역직구 금액은 9억7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5년만에 17배 넘게 확대됐다. /뉴시스

제2의 반도체 찾아라 신산업 육성이 살 길

⑤ 韓경제 제로성장 위기

정부, AI·바이오·양자 3.4조 투입
반도체·전기차·로봇 등 75조 지원

삼성·LG·현대차, 신산업 속도전
‘퍼스트무버’, 민관 협력이 관건

한국 경제가 1년째 ‘제로 성장’(0.1% 이하 성장률)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민관이 힘을 합쳐 ‘제2의 반도체’가 될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선정하고, 올해에만 3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전기차, 로봇 등 5대 신산업에는 총 7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2030년까지 민관 합산 6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4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경기 기흥과 온양에 반도체 후 공정 패키징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약 120조원을 들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AI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AI용 HBM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70%를 기록 중이다.

LG전자는 로봇, 기업간 거래(B2B),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미래 사업 전환에 나섰다. 서비스 로봇 ‘클로이’는 연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국내 서비스로봇 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협업해 실내 배달로봇 사업도 확대 중이다. LG그룹은 2030년까지 로봇·모빌리티 분야에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와 도심항공교통(UAM)을 두 축으로 삼아 2030년까지 65조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 전기차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시범 운행 중이며, 수직 이착륙 비행체 ‘수퍼널’도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전략이 효과를 내려면 결국 ‘퍼스트무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는 선진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패스트팔로워’ 전략이 통했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된 지금은 ‘퍼스트무버’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게임체인저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방향을 놓치면 아예 시장 진입 기회를 잃게 된다”며 “정부가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보내야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산업 육성의 성공 열쇠가 민관 협력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규제 혁신과 제도 기반 마련, 기업의 기술 투자, 학계와 연구기관의 인재 양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5월 내수지표 확인 후 성장률 내릴 것”

경제사령탑 공백에 관세협상 제동
이창용 “연휴 긴 5월 소비지표 주목”
글로벌 IB들 ‘韓 0%대 성장’ 전망

“경제부총리 사퇴 이후 곤혹스러운 한 주를 보냈다. 7월 9일까지 미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를 협상해야 하는데, 6월 3일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 협상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국내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90일 유예된 관세 협상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번 사퇴로 경제와 관련해 주요 결정을 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7월 9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관세 협상이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6월 3일 선거가 끝난 뒤부터 협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 시간이 없고, 기존 협상체제가 흔들리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음 정부 전까지 협의를 진행하다가 전달할 필요가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은행

있다”고 말했다.

◆ 5월 ‘내수’ 따라 성장률 전망치 하향 이 총재는 이달 말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과 관련해 “성장률을 내려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얼마나 내려야 할지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데이터를 다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한은의 2월 전망치 0.2% 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1분기부터 예상

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을 낮춰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흐름이 5월까지 이어지는지 보고 감소폭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1.3%에서 1.0%로 낮췄다. 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0.5%), 씨티그룹(0.6%), ING그룹(0.8%) 등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대로 예상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수출이 부진할 때는 내수가 버텨주고, 내수가 어려울 땐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 소비동향을 파악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연속 감소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졌고, 경제 사령탑마저 사퇴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5월 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가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지는지, 내수(소비·투자)를 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2면에 계속〉

/밀라노(이탈리아)=나유리 기자 yul115@

이번엔 의약품… 트럼프, 2주내 관세 발표

미국 내 의약품 제조 독려 행정명령
韓타깃 우려 셀트리온·SK 선제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부과를 시사하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의약품 제조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제약 공장을 짓는 데 소요되는 승인 시간을 단축할 것을 미국 식품의약품(FDA), 환경보호국(EPA) 등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의약품 가격에 대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미국은 매우 불공정하게 과징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한국을 상대로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당시 의약품, 반도체 등은 별도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약품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이어 세 번째 품목별 관세가 된다.

의약품 관세는 원산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미국약전위원회(USP)에 따르면 미국 처방약의 원료의약품은 주로 인도(32%), 유럽 연합(20%) 등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원료의약품 생산 규모는 전체의 12%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우며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약값 인상과 사회적 의료비 급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약가 인하 정책까지 내놓아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관세 부과 여부, 관세 품목, 대상 국가 등 다양한 변수를 대입하며 국내외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은 국내 대표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 관세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미 올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 예정인 제품 재고를 현지로 이전했고, 제조 역량을 갖춘 현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미국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 SK바이오팜도 미국 내 사전 물량과 의약품 위탁생산(CMO) 시설을 이미 확보했다. 필요에 따라 FDA 허가를 받은 생산 시설에서 즉시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망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기업 입지를 다져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민주 “조희대 대선개입 재판으로 3차 내란 기도… 탄핵사유 해당”
▲문형배 “尹 선고… 만장일치 만들어보려고 오래 걸려” /사진 뉴시스

▲권영세 “김문수, 단일화 약속 어기면 국민 배신… 대선 실패시 역사의 죄인”
▲한덕수 “개헌 힘 쏟고 3년 뒤 물러날 것” 이낙연 “저와 완전히 일치”

▲김문수 “전국위·전대 소집 이유 밝혀야”… 국힘 “단일화 행정절차”
▲권영국 “민주주의 불행 멈추려면 사회대전환·정치개혁”